★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 진행

★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민족의 영웅

조선

주체113 (2024) 8

(819)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전승 71돐에 즈음하여 전쟁로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9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10 ‖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16 ‖ 위대한 전승 71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성대히 거행

24 ‖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2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3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3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41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4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피해현장을 돌아보시였다

5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진행

특 집

56 ‖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민족의 영웅

소 식

64 ‖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을 전인민적경사의 날로 뜻깊게 경축

오늘의 조선

68 ‖ 굴지의 타일생산기지

72 ‖ 광천닭공장

76 ‖ 전위거리의 야경

표 지: 위대한 전승 71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성대히 거행
뒤표지: 전승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 무도회 및 축포야회 진행
편 집: 변일진, 김규성, 조철주, 승 룡

위대한 년대의 승리전통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전승 71돐에 즈음하여 전쟁로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승세대의 불멸할 영웅정신과 값비싼 희생을 뜨겁게 회억하시며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오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승세대의 불멸할 영웅정신과 값비싼 희생을 뜨겁게 회억하시며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과 함께 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7.27의 기적을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은 모두가 숭고한 리상과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지닌 열혈의 혁명가들이였으며 자기의 더운 피로 온 세상이 경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진정한 영웅,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세대가 소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 시대와 력사우에 거연히 떠올린 불멸의 7.27이 있어 가장 존엄높고 자주적인 불패의 강국으로 영광떨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오늘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승세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세대가 소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 시대와 력사우에 거연히 떠올린 불멸의 7.27이 있어 가장 존엄높고 자주적인 불패의 강국으로 영광떨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오늘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승세대의 투철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으로 변함없이 이어나갈 때 우리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의 투철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으로 변함없이 이어나갈 때 우리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깃든 이 땅에 후손만대의 복락이 담보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것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계승과 번영의 려정으로 빛날 공화국의 강국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가실 굳은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참가자들은 숭엄한 마음으로 렬사묘를 돌아보면서 국가존망을 판가름하는 가렬한 전화의 결전장마다에서 수령만세, 조국만세를 높이 부르며 승리를 향해 돌진해나가고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억척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추를 다진 영웅들의 고결한 넋과 정신을 꿋꿋이 이어갈 맹세를 담아 렬사들의 묘앞에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드리는 숭고한 경의와 주체조선의 전승사를 백년, 천년으로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불굴의 투쟁의지가 축포의 뢰성이 되여 뜻깊은 7월의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오후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에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주권수호를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적인 충성으로 받들어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쳐부시는 거대한 력사적공훈을 청사에 새긴 혁명의 1세들의 고귀한 삶을 경건히 회억하시면서 오진우동지, 김일동지, 최춘국동지, 강건동지, 김책동지, 안길동지, 류경수동지, 최현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과 인민이 일심일체를 이룬 위대한 단결의 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받아들인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세상에 없는 기적을 낳을수 있음을 항일의 혈전만리와 전화의 철비속에서 만고의 진리로 립증한 투사들은 오늘도 후손들의 마음속에 억척의 기둥으로 거연히 간직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의 승리전통을 반제반미승리의 전통, 영원한 조선의 백승의 전통으로 승화시키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비상히 증폭시킨것이야말로 렬사들이 조국과 혁명앞에 남긴 공적중의 공적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정신으로 세대와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진함을 모르는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룰 때 7.27은 사회주의조선의 불멸의 상징으로, 필승의 대명사로 후세토록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유산을 마련하고 불멸의 혁명전통을 창조한 렬사들의 넋과 정신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71 1953 202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유산을 마련하고 불멸의 혁명전통을 창조한 렬사들의 넋과 정신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쟁취한 승리의 7.27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여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인류사적대승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승사에 고여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군공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금별의 위훈으로 간직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혈연적뉴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렬사들의 영생의 넋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승리의 명절을 맞이한 전국의 전쟁로병들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조국수호정신과 승리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계승자들의 사명감이 더욱더 승화되는 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상봉모임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체육관에 도착하시여 당과 정부, 군부의 중요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해온 전쟁로병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불패의 우리당, 강대한 우리 국가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힘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승리의 명절을 맞이한 전국의 전쟁로병들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발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그는 소중한 추억과 크나큰 자부를 안고 전승절을 맞이한 전쟁로병들과 전체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조국수호성전에서 희생된 영웅전사들,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그는 조국의 가장 귀중한 명절에 위대한 력사의 창조자, 체현자들과 뜻깊은 상봉모임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랑이고 새세대들의 행운이라고 하면서 가장 참혹한 전쟁의 년대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꾼 극적인 시대를 아프게만 아니라 영예롭게 추억할수 있다는 사실자체가 우리 세대의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승의 영예가 있기에 우리 국가는 전승국만이 얻을수 있는 특유의 비상한 힘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평범한 나날에는 얻을수 없고 수백수천권의 책으로써도 깨우칠수 없었던 값진 정신적재부를 얻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승세대의 정신은 우리를 영원히 강하고 위대한 인민으로 존엄떨치게 하는 불멸의 넋이며 그 줄기찬 계승으로 우리는 더 큰 승리, 더 값진 승리를 쟁취할것이라고 하면서 억년토록 계속될 승리의 력사를 위하여, 무궁할 전승의 우리 조국을 위하여 위대한 넋을 고인 전쟁로병들에게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전승세대의 위훈과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편집물이 방영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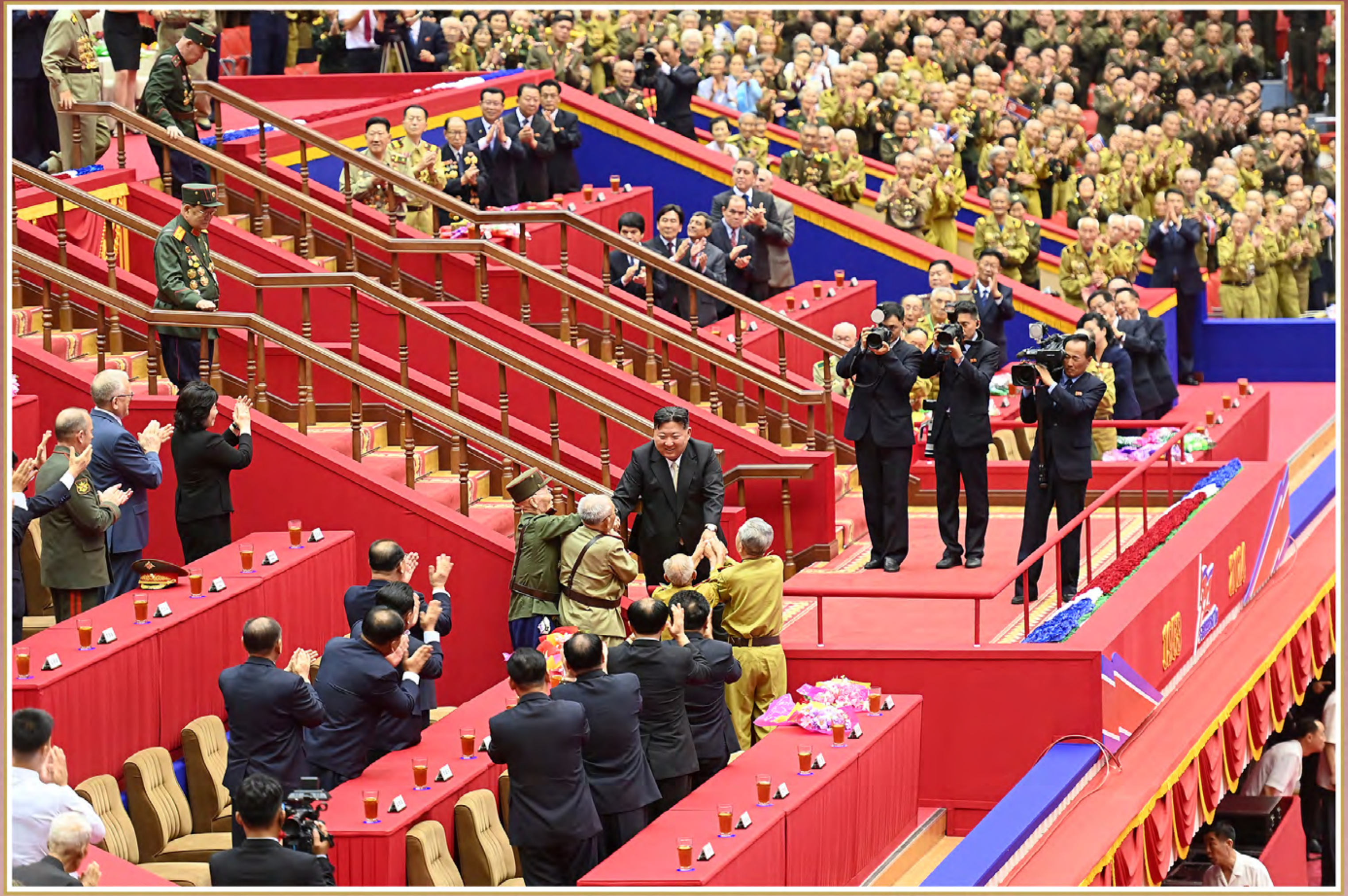
동방일각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일떠선 신생조선에 강요된 전쟁은 우리 나라와 아시아, 나아가 전인류를 노예화하려는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의 강행으로서 100여년의 침략전쟁사를 가진 오만한 제국주의괴수와의 대결은 창건후 2년도 못되던 우리 국가에 있어서 너무도 중과부적인것이였다.

조선이 더는 약소국이 아니고 우리 인민이 결코 섬약한 인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엄숙한 사명과 꺾을수 없는 자존심을 굳히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력사와 오직 승리로써만 방향지을수 있는 강국의 미래를 위해 결사항전, 전민항전에 떨쳐나섰던 70여년전의 충격이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생생히 갈마들었다.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전법으로 전쟁을 이끄시고 력사가 알지 못하는 열화의 사랑과 믿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시대의 주인공들로 안아키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이 전승을 안아온 근본비결임을 전체 참가자들은 다시금 새겨안았다.

오늘날 그 어떤 강적도 압승할수 있는 무비의 자위력으로 국권과 국익, 진정한 평화를 수호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위상을 과시하는 장면들은 강대한 이 나라에서 전란의 걱정을 모르고 자란 모든이에게 전승을 안아온 력사도 위대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억세게 이어온 계승의 력사는 더욱 거룩함을 감명깊이 보여주었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인 륙군상좌 리은룡, 해군소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조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 한생을 투쟁과 헌신으로 불같이 살며 훌륭한 삶의 자욱을 새긴 전쟁로병들모두가 건강장수하기를 축원하시고 전체 참가자들이 전승국의 공민된 신성한 존엄과 명예를 귀중히 간직하고 전승세대의 넋을 굳건히 이어나가기를 바라시며 오래도록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유경성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승세대가 처했던 운명적인 시각, 전쟁의 처절했던 나날들을 되새겨본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면서 전승의 7.27을 안아온 수많은 영웅전사들의 무비의 용맹과 위훈은 조국방선을 지켜선 수호자의 중대한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 시각도 우리 조국의 남쪽국경선너머에서 핵전쟁도발에 발광하고있는 미제와 괴뢰한국군부깡패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분출시키면서 그들은 전쟁시기 적들에게 멸망의 공포를 주고 혁혁한 전과를 올린 근위부대의 무훈과 단 네척의 어뢰정으로 미해군의 중순양함을 격침시켰던 세계해전사의 신화를 백배, 천배의 기적과 승리로 빛내일 의지를 표명하였다.

토론자들은 로병들의 필생의 뜻과 당부를 새기고 국권사수, 령토완정과 령해수호의 용맹한 투사가 되며 철저한 전쟁대응능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 지체없이 적을 압도적으로 공격하고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것을 **김정은**동지께와 당과 국가앞에 엄숙히 맹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조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 한생을 투쟁과 헌신으로 불같이 살며 훌륭한 삶의 자욱을 새긴 전쟁로병들모두가 건강장수하기를 축원하시고 전체 참가자들이 전승국의 공민된 신성한 존엄과 명예를 귀중히 간직하고 전승세대의 넋을 굳건히 이어나가기를 바라시며 오래도록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성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끗끗이 계승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전승세대가 념원한 부국강병의 대업을 기어이 성취해나갈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용기, 열정과 투지를 백배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전승 71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성대히 거행

백전백승하는 조선혁명의 투쟁행로에 기적의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위대한 7.27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우리 국가의 영광넘친 승리의 명절을 맞고 보내는 우리 인민특유의 자부심과 승리전통의 계승성을 과시하며 위대한 전승 71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거행되였다.

조국과 인민을 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평화를 지켜낸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의 군상이 불멸의 대하로 굽이치게 될 평양체육관광장은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 대한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위대한 사상과 비범특출한 령도로 백승의 영웅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가시며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전체 경축행사 참가자들이 터치는 《만세!》의 함성이 수도의 하늘가로 메아리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전쟁로병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국방성 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당중앙

위원회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안의 일군, 공로자들, 혁명학원 학생들, 청년대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잡았다.

평양체육관광장과 그 주변은 기념행진의식을 보기 위해 모여온 수도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의식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울려퍼지자 종합군악대가 70여년전 전승의 광장에 차넘쳤던 격정과 환희를 안고 경쾌한 선률과 박력있는 률동, 특색있는 기교로 군악례식을 펼치였다.

청소한 신생조선을 이끄시여 오만한 미제의 《상승》의 전통을 치욕과 패배의 전통으로 바꾸어놓으시고 우리의 자랑찬 국호와 국기를 강국의 정상에 떠올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이 개시되였다.

수령결사옹위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가렬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를 보위하는 억척의 방탄벽이 되였던 현철해, 연형묵, 박송봉, 심창완동지를 비롯한 열혈충신들의 전시초상사진을 든 친위중대상징종대가 진두에서 나아갔다.

조국해방전쟁승리에 특출한 기여를 한 우리 혁명무력의 첫 근위부대, 전설적인 근위사단상징종대들이 불멸의 공훈이 깃든 군기를 힘차게 나붓기며 련이어 광장에 들어섰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였던 강건동지, 사단장이였던 최현동지와 리수복, 안영애영웅을 비롯하여 부대가 배출한 공화국영웅들의 초상사진을 대오에 세운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상징종대가 1211고지방어전투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며 침략자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처넣은 자랑드높이 힘찬 보무를 내짚었다.

전쟁개시 72시간만에 서울을 해방하는 기적을 창조하고 대전해방작전에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상징종대,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상징종대들의 전렬에는 전선사령관이였던 김책동지를 비롯한 항일빨찌산출신 맹장들의 모습이 빛났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적방침과 작전적의도를 받드는 길에서 한치의 에누리도 몰랐던 항일혁명투사들이 근위부대들을 이끌었기에 조국해방전쟁의 1 129일을 혁혁한 전과로 가득 채울수 있었음을 절감하며 관중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첫세대 지휘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령활한 기동전으로 전선을 종횡무진하며 위훈을 떨친 근위 제6보병사단상징종대와 동부산악지대에서 맹호사단으로 소문났던 안동최춘국제12보병사단상징종대가 《나의 고지》운동의 선구자 한계렬영웅과 강호영, 조순옥을 비롯한 육탄영웅들의 초상사진을 들고 나아갔다.

가렬한 전화의 그날 서울시가에 남먼저 돌입하여 적의 아성에 공화국기를 휘날렸고 미제의 《상승사단》을 무자비

하게 짓뭉개며 대전, 대구, 부산으로 육박했던 용맹한 땅크병영웅들도 전진하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상징종대에 불굴의 군상으로 서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대중적영웅주의,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의 체현자들인 공화국의 첫 영웅세대, 강철의 근위병들이 포화속의 청춘의 모습으로 빛나는 근위사단상징종대들에 손을 드시여 격려를 보내시였다.

행진대원들의 전투적열광과 관중들의 환호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으로 세계해전사에 특기할 주문진의 기적을 창조한 근위 제2어뢰정대상징종대,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락엽으로 만든 근위 제56김지상영웅추격기련대상징종대가 도도히 진군해갔다.

수령의 명령이라면 하루밤사이에 백여리를 내달려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강행돌파의 정신과 력량상 대비도 안되는 백배, 천배의 대적과 맞서 승전신화를 안아온 육탄정신, 결사전의 기개가 근위 리훈제18보병련대, 근위 제10보병련대, 근위 제14보병련대, 근위 제86보병련대의 포연서린 군기와 영웅들의 모습에 비껴있었다.

평양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 최고사령부의 안녕을 결사보위한 근위 제19고사포병련대, 근위 제23고사포병련대의 혁혁한 군공을 체현한 상징종대들의 발구름소리도 높았다.

근위련대상징종대들의 뒤를 따라 적후전선과 싸우는 후방에서 적들의 기도를 분쇄하고 수많은 간첩파괴암해분자들을 적발숙청하는 특출한 공훈을 세운 내무성상징종대와 포화속을 뚫고 전시물자수송에서 무비의 위훈을 떨친 철도병상징종대가 광장을 활보해갔다.

전체 관중들은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창조한 영웅세대의 투쟁정신과 불굴의 넋을 대대손손 이어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상징종대들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이어 조국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공화국정권의 수호대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륙해공군종대들이 반미대결전을 강국조선의 승리로 통쾌하게 결속할 멸적의 기개와 우리 혁명무력의 강대성과 현대성, 영용성을 과시하며 보무당당히 광장으로 들어섰다.

세월의 흐름에도 퓽화되지 않고 세대의 교체에도 변함없이 련면히 이어지는 위대한 승리의 체현자들인 무적의 륙군종대가 국방성군기와 대련합부대들의 군기를 추켜들고 위엄있게 행진해갔다.

그 뒤를 이어 인민해군과 하늘의 육탄비행대도 영용한 모습을 드러내며 보무당당히 지축을 울렸다.

위대한 당중앙이 벼려준 백승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준비해온 정의의 대업을 반드시 완수하고야말 륙해공군 행진대오의 기세는 충천하였다.

영광의 군기에 아로새긴 성스러운 구호그대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국권수호, 인민사수, 거창한 창조의 전역들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함을 더해주고 인민의 행복과 창창한 앞날을 지켜가는 이런 훌륭한 군대를 가진 인민의 긍지, 이런 강용한 군대를 키워낸 당중앙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경축의 광장에 끝없이 넘쳐흘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을 무장마다에 만장약하고 혁명의 전위에서 우리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하는 새세대 근위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경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행진대원들은 위대한 7.27의 승리전통과 영웅정신을 후손만대로 이어주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위와 강대성을 사상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강철의 령장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리였다.

행진이 끝나자 조선인민군 공군비행대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부채살대형으로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올라 7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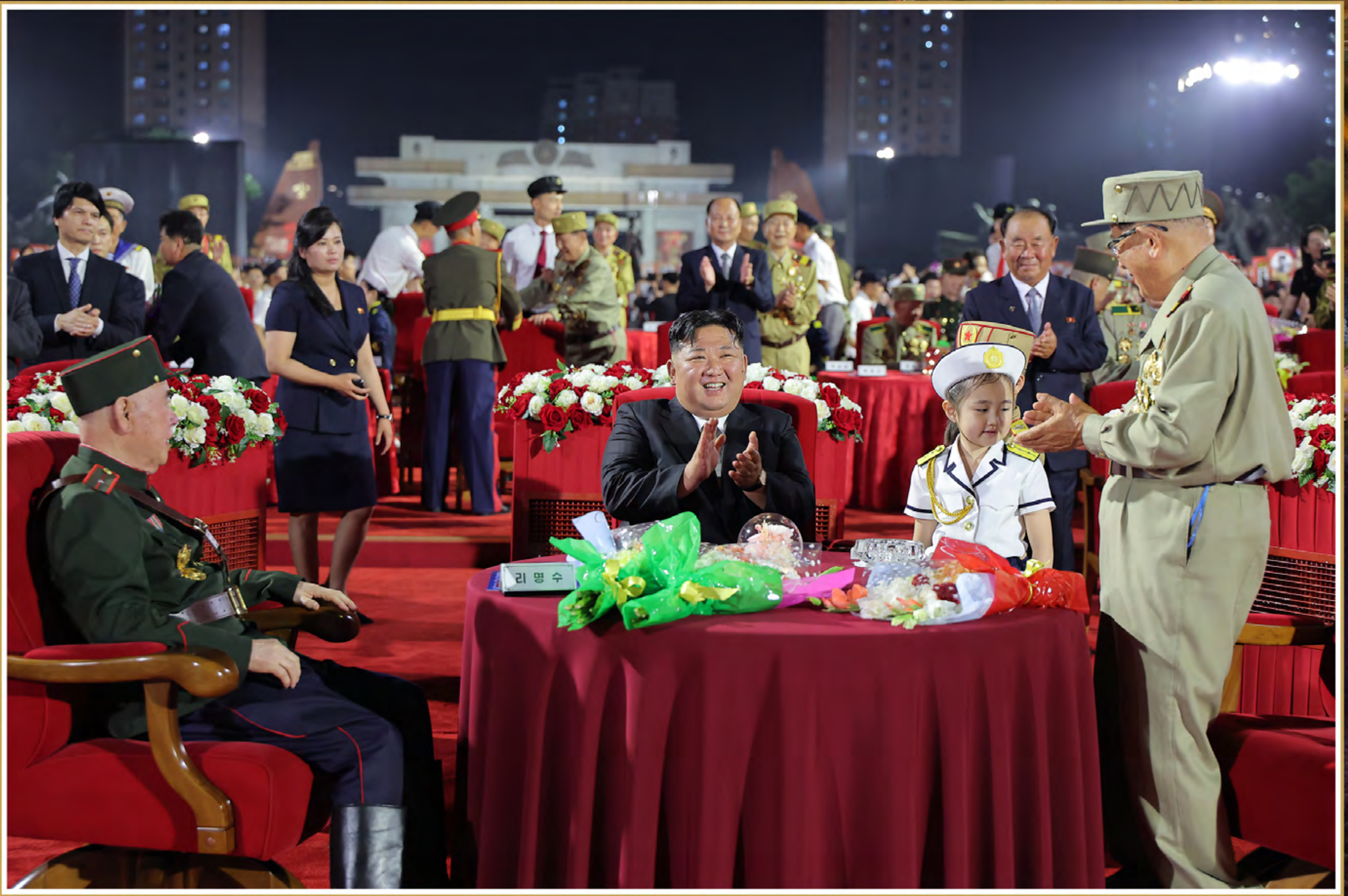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여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전승 71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은 시원도 위대하고 계승도 위대한 주체조선의 70여년의 승전사를 만년대계로 이어가며 **김정은**시대를 새로운 승리와 영광, 번영의 시대로 빛내여나갈 군대와 인민의 억척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특별소식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멸할 명예와 필승의 상징으로 빛나는 위대한 전승절의 환희와 격정을 승화시켜주며 7월 27일 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성대한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공연장소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전쟁로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올리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중요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민들, 청년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국방성 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관람석에 자리잡았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무대화면에 성스러운 공화국기가 형상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승의 7.27을 안아온 영웅전사들의 선혈이 물들고 전후 70여년간 값비싼 승리를 지켜 혁명의 매 세대가 바쳐온 고결한 넋과 주체조선의 무궁창창한 미래가 비껴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숭엄히 우러렀다.

설화와 노래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로 시작된 공연

1953 71 2024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전승찬가들, 계승의 년대들에 높이 울린 신념의 노래들이 올랐다.

1950년 6월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결전에로 온 나라를 총궐기시킨 전인민적인 전선탄원가요, 원쑤격멸의 진군가인 《조국보위의 노래》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은 동방일각의 전초선에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발발을 완강히 좌절시킨 전인민적 애국항전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왔다.

위대한 영웅세대의 삶과 투쟁의 노래들을 열창하며 출연자들은 불세출의 수령을 진두에 모시고 국가창건의 첫 기슭에서 가장 엄청난 도전과 처절한 참화를 이겨내며 조국사수전, 혁명보위전, 평화수호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청소한 요람기의 신생조선을 이끄시여 오만한 미제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파멸을 선고하고 우리의 자랑찬 국호와 국기를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떠올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무대화면에서 우러르며 관람자들은 7.27의 기적이야말로 억만금으로도 바꿀수 없는 우리 조국의 제일가는 자산, 천추만대로 계승해야 할 고귀한 전통임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공연은 새시대 전승찬가들인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우리의 7.27》로 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이 끝나자 지휘자와 주요배우들이 전쟁로병들에게 전체 출연자들의 존경의 마음이 담긴 꽃다발들을 안겨주었다.

우렁찬 환호가 또다시 세차게 분출하는 속에 장쾌한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날아올라 전승절의 열광을 더욱 고조시키였다.

조선혁명의 가장 운명적인 년대에 위대한 신념과 단결의 위력으로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경의의 꽃보라인양 오색찬연한 축포탄들이 불멸의 《승리》상과 영웅전사들의 군상을 눈부시게 밝히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7.27의 필승불패의 정신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여 혁명의 백년대계를 위대한 승리로 이어나감으로써 세계가 우러르는 주체의 부흥강국을 반드시 떠올릴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1일과 12일 삼지연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날로 승화되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비추어 삼지연시를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문명도시로 일신시키기 위한 중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를 우리 나라 북부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특색있는 복합형산악관광지구, 사계절산악관광지구로 개발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충족시키고 국제관광도 활성화해나갈 당의 구상을 피력하시면서 천연수림과 산악을 이루고 있는 백두산일대의 대자연은 내놓고 자랑할만한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세계적인 명산 백두산관광문화지구를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며 관광업이 지방발전을 위한 주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의 미개척지인 포태지구는 강설량이 많고 자연지리적 및 기상기후적으로도 체육 및 체험활동형산악관광지구로서 적지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규모스키관광휴양지건설사업을 2년기간내에 추진시키는 문제를 토의하시고 북포태산을 중심으로 스키장과 관광휴양지를 건설하며 삼지연비행장을 개건하고 관광철도를 부설하기 위한 단계별과업그리고 삼지연시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축이 나라와 민족의 문명정도와 해당 사회의 발전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는것은 이미전부터 우리 당이 계속 강조해온 문제라고 하시면서 삼지연시의 문화관광시설들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시킨 우리 나라 특색의 발전된 건축형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날로 승화되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비추어 삼지연시를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문명도시로 일신시키기 위한 중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축물 하나에도 시대의 사상이 반영되고 문명수준이 반영되는것만큼 건설 그 자체는 곧 중요한 사상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건축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민족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북포태산지구 스키관광휴양지를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의 요구가 뚜렷이 반영된 인민들이 즐겨찾는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일떠세울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산지면적이 전 령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산악관광업을 전망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와 함께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들도 완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대한 삼지연관광지구 건설사업은 나라의 자연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며 관광업을 통하여 지방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해나가는데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구상하고있고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수 있는 관광지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의심할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무수한 초행길들마다에 진함없는 사색과 심혈과 정력을 깡그리 쏟아부으시며 날에날마다 부흥번영하는 새세상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안아오시는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영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떠받들려 가까운 앞날에 력사의 삼지연땅에는 만인을 경탄시킬 경이적인 인민사랑의 기적적 현실이 빛나게 펼쳐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협의회를 소집한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선 지방발전 10년혁명의 세기적변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해안연선지역 시, 군들이 바다의 경제적잠재성과 자원의 효과적개발 및 리용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5일 당과 정부의 주요간부들과 함께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를 찾으시여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부지를 돌아보시고 사업계획들을 료해하시면서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협의회를 소집한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선 지방발전 10년혁명의 세기적변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해안연선지역 시, 군들이 바다의 경제적잠재성과 자원의 효과적개발 및 리용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잘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것이 지방경제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력을 통일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끌어올리는데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의 경제적수익과 효과성에 대한 자료보고를 청취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이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엄중하게 분석하시고 경제생활에서 도농의 격차를 줄일데 대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온 정책과 방침들은 국가적으로 지방의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만 실현시킬수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풍어동지구앞바다수역에서 밥조개와 다시마양식을 잘하면 척박하고 경제력이 약한 신포시가 3~4년후에는 공화국의 시, 군들가운데서 제일 잘사는 《부자시》가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새 세기 양식업의 본보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꾸려 신포시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을 령도하는 당이 무엇을 하나 구상하면 군대가 그것을 언제나 영예로운 력사적사명으로 받아안고 무조건 실천하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의 특유한 뉴대이고 가장 성스러운 전통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을 인민군부대들에 위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과 관련하여 련관단위들에서 분담된 임무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현대적인 바다가양식기지건설을 강력하게, 실속있게 내밀어 전국도처에 확대도입할수 있는 창조적모범을 만들어낼데 대하여 지시하시고 지방발전20×10비상설추진위원회안에 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분과를 조직하여 바다를 낀 이여의 시, 군들에서 양식기지를 전개하는 사업을 관할하고 지도하도록 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부문에서 보고한 양식사업소형성안이 새 세기 양식산업의 본보기적창조물에 걸맞는 수준에서 작성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과정이 산업시설설계에서 또 하나의 혁명적인 발전단계로 되도록 보다 혁신적인 안목에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새로운것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계방향을 밝혀주시였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식업의 발전 역시 과학적인 담보와 타산에 기초하여야 하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자혁명을 앞세우고 양식장관리, 생태환경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서 과학화수준을 최대로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시, 군 책임일군들이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과 경제적잠재력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와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할데 대한 문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혜조치가 은을 낼수 있게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완비할데 대한 문제, 시, 군들에서 핵심기술자들과 기능공육성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 실무적인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포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협의회를 마치신 후 바다가양식장수역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6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안선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거대한 관광지구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부감하시며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고, 한폭의 그림과도 같은 바다가특유의 이채로운 저 경관을 눈에 담는것만으로도 금시 몸과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것만 같다고, 목표했던바 그대로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로서의 체모를 유감없이 완벽하게 드러내고있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기세를 늦추지 말고 건설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며 이를 위하여 지휘성원들이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건설자들이 배가의 분발력을 발휘하며 건설감독기관들이 책임과 역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결정에 따라 다음해 5월까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개업을 목적한데 맞게 운영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하시기

위하여 현지에서 동행한 일군들과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관광지구운영준비사업을 잘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문화휴양지를 잘 꾸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위상에 걸맞게 봉사운영을 흠잡을데없이 따라세우는것 또한 관건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아무리 현대적인 시설이라 해도 봉사운영수준이 빈약하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봉사운영능력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그에 기초하여 봉사단위들을 선정하며 지금부터 운영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고 일련의 중요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시는 해안도시로서 자연지리적으로 경치가 아름다우며 특히 이곳 갈마반도의 명사십리는 예로부터 손꼽히는 명승지로 일러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제일유명관광지로 세계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될 국보급의 해양공원이 반드시 훌륭하게 일떠섬으로써 명사십리는 머지않아 원산의 자랑, 인파십리로 매력적인 명성을 높이 떨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8일 알렉쎄이 크리보루츠꼬 로씨야련방 국방성 부상이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부상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에게 보내는 정깊은 인사를 전하시였다.

석상에서는 호상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군사분야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주권적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을 벌리고있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강력한 지지와 굳건한 련대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6월에 진행된 조로평양수뇌상봉의 중대한 의미를 다시금 평가하시고 오랜 력사적전통과 전투적뉴대로 이어진 두 나라 군대가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시대 조로관계를 힘있게 인도하며 지역과 세계평화, 국제적정의를 수호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담화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피해현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집중폭우에 의한 재해현장과 재해예측지역의 주민구조 및 대피사업을 직접 지휘하시였다.
물이 범람하는 험한 길을 달려 구조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비행기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로부터 침수위험구역의 주민상태와 구조전투상황을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피해현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집중폭우에 의한 재해현장과 재해예측지역의 주민구조 및 대피사업을 직접 지휘하시였다.

위기정황이 발생한 즉시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포치하신데 따라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이 현지에 급파되였으며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기들과 해군과 국경경비대 해상경비편대의 각종 구조정들이 주민구출전투에 신속히 투입되였다.

물이 범람하는 험한 길을 달려 구조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비행기지에 도착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로부터 침수위험구역의 주민상태와 구조전투상황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10여대에 달하는 직승기들이 무려 20여회씩 련속적인 왕복비행을 하면서 불리한 일기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기간 지켜보시며 전투를 직접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부대 지휘관들과 비행사들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피해지역상황을 청취하기도 하시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구조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으며 주민구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몇차례나 정찰비행을 재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인민공군의 성격이 또 한번 뚜렷이 과시되였다고, 공군이 발휘한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결사복무정신에 온 나라 인민이 감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구조전투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직승비행련대장이 앞장에서 어려운 구조비행임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는데 정말 지휘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훌륭히 갖추었다고, 전군적으로 따라배울 또 한명의 우수한 지휘관을 전투환경속에서 찾아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그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해복구 및 구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재난에 의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후과를 빨리 가시며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0여대에 달하는 직승기들이 무려 20여회씩 련속적인 왕복비행을 하면서 불리한 일기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기간 지켜보시며 전투를 직접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해복구 및 구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재난에 의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후과를 빨리 가시며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지역에 폭우발생이 의연히 예견되는 조건에서 더이상의 재난이 초래되지 않도록 속히 대책을 세우며 큰물발생위험이 가셔지는 즉시 영구적인 피해복구대책에 일제히 진입할수 있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비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시와 의주군을 비롯한 평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압록강연안의 일부 군내 지역들을 특급재해비상지역들로 선포하고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안전 및 무력기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들이 력량과 기재를 총동원하여 피해방지 및 복구사업에 떨쳐나섬으로써 피해를 빨리 가시고 생산 및 생활질서를 정상수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시와 의주군을 비롯한 평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압록강연안의 일부 군내 지역들을 특급재해비상지역들로 선포하고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안전 및 무력기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들이 력량과 기재를 총동원하여 피해방지 및 복구사업에 떨쳐나섬으로써 피해를 빨리 가시고 생산 및 생활질서를 정상수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진행

최근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큰물과 폭우로 인한 엄중한 피해들이 련속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시급한 복구대책들을 수립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평안북도 신의주시 피해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소집에 앞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내각총리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침수지역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형지물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든 침수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시고 최단기간내에 복구와 관련한 국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삶의 터전을 안겨주실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며칠사이에 여러 지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큰물피해가 발생하고 보다 확대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피해방지 및 복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형지물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든 침수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시고 최단기간내에 복구와 관련한 국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삶의 터전을 안겨주실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고 상기시키시고 현재까지 종합된 전국 및 지역별 큰물피해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인민들은 당을 믿고 이 회의를 지켜보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기대와 그들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을 무겁게 자각하고 하루속히 피해를 가시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강력하게, 세밀하게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그를 위한 강령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착시키기 위하여 비상재해용비축물자들을 긴급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내각과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 동원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도별 피해상황과 손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복구건설규모와 로력, 예산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할데 대한 문제, 중앙과 지방의 설계력량을 지체없이 동원하고 설계들을 선행시켜 복구전투에서 신속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건설력량을 시급히 파견하며 자재보장과 원활한 수송을 실현하는 문제 등 피해복구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재해성기후에 의한 추가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상예보부문에서는 예보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최대로 각성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며 특히 인명피해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재해발생시 구조작업에 동원할수 있는 필수구조장비와 기재들을 시급히 비축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치국 성원들을 비롯한 회의참가자들이 의주군의 수재민들이 림시거처한 천막들에 찾아가 생활형편을 실지 눈으로 보면서 자기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보며 그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안들을 깊이 연구하여 정치국에 제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비상확대회의 1일회의를 마치시였다.

2일회의가 7월 30일에 진행되였다.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의 연구결과와 의견들을 추가반영한 결정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큰물피해를 시급히 복구할데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를 결속하시면서 우리는 위기를 한두번만 겪어오지 않았다고,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앞에 항상 용감했고 공세적이였으며 언제나 기적만을 창조하였다고, 당의 령도가 있고 당에 충실한 군대와 인민이 있는한 못해낼 일이란 없다고 하시며 다시한번 위기를 딛고 억세게 떨쳐일어나 기적적인 성과들을 일으켜나가자고 렬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일제격멸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민족의 영웅

돌이켜보면 과거 우리 인민은 일본제국주의의 군사적강점(1905년-1945년)으로 식민지노예의 수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의 혈전만리를 헤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주신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12년-1994년)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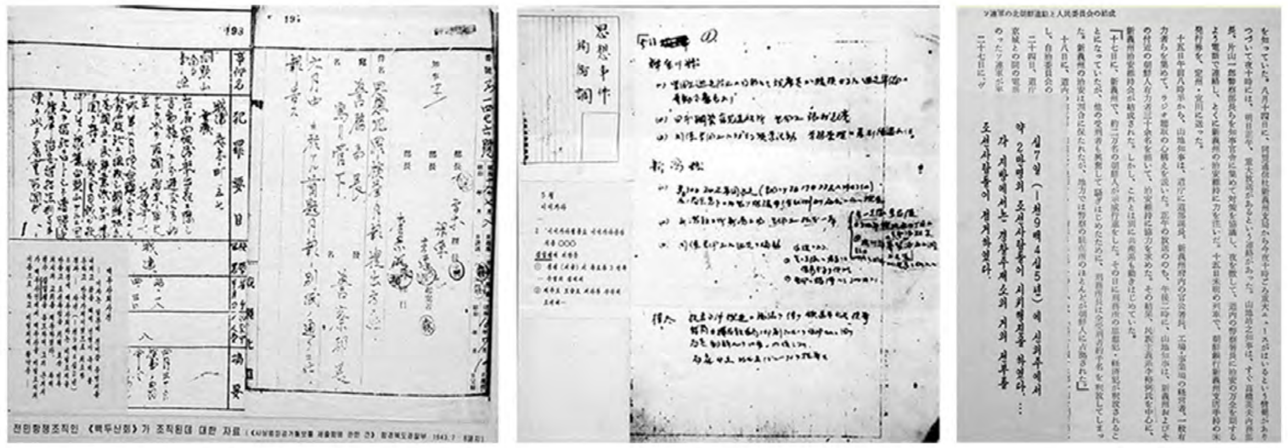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벌써 나라찾는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조선혁명의 주인은 바로 조선인민자신이며 전체 조선인민이 단결하여 일어나 싸울 때 반드시 일제를 멸망시키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시고 유격전에 기초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그이의 령활무쌍한 지휘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전투마다에서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인민들은 그이를 민족해방의 구세주로 우러르며 조국해방전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나라는 마침내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해방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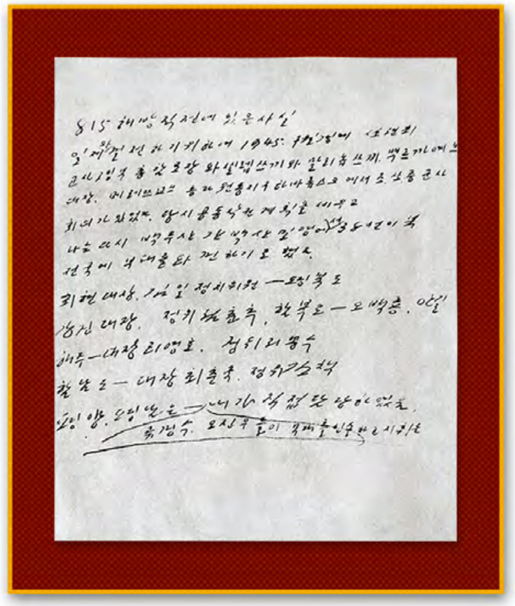
그때로부터 7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고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고있다.

글 한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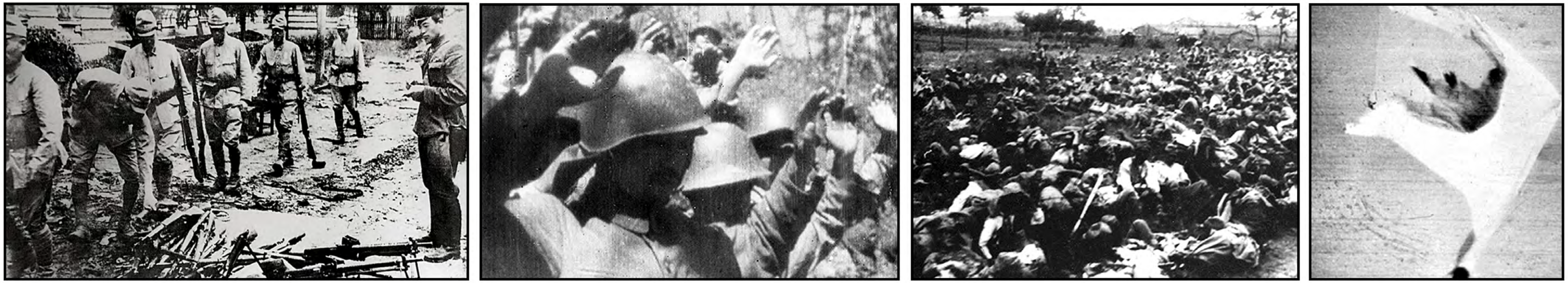
전민항쟁조직들이 도처에 조직된데 대한 당시 일제의 문건과 자료

항일혁명투사들이 쓴 구호문헌중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일제의 패망상

1945. 8. 15.

해방의 환희에 넘쳐있는 인민들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길이 전하는 개선문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조선의 해방위업을 이룩하시고 평양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주체71(1982)년 4월 14일 개선문을 건립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을 전인민적경사의 날로 뜻깊게 경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전승세대의 넋을 계승해나가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이 진행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인민군장병들이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에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청년전위들의 계승의 행진이 진행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백옥같은 충성과 경모의 마음들이 그리움의 대하가 되여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령도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들을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은 세계유일무이의 군사적기적을 안아오시고 영웅조선을 탄생시키신 위대한 령장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수도 평양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및 축포야회가 진행되였다.

국가지도간부들이 위대한 전승절을 맞으며 전쟁로병들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이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수도 평양에서 전승세대의 넋을 계승해나가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청년전위들의 계승의 행진이 진행되였다.

각지에서 전쟁로병, 공화국영웅들과의 상봉모임이 진행되였다.

수도 평양과 각 도소재지들, 시, 군들에서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고 극장들에서는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펼쳐져 명절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사진 우정국
글 김선경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연회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을 경축하여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공연 진행

화보 【오늘의 조선】

굴지의 타일생산기지

천리마타일공장에서는 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여 타일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철저히 담보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수많은 건설대상들에 각종 타일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다.

남포시 천리마구역에 자리잡고있는 천리마타일공장은 수백종에 달하는 각종 타일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굴지의 타일생산기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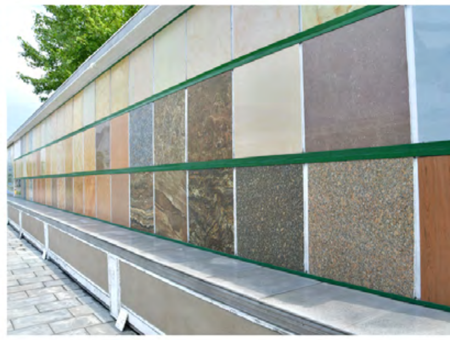
최근년간에만도 이 공장에서는 수도 평양에 일떠선 새 거리들과 각지의 농촌마을들, 강동종합온실농장 등 수많은 건설대상들에 각종 타일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공장이 굴지의 타일생산기지로 이름떨치게 된것은 생산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였기때문이다.

공장에서는 조업후 지난 15년간 생산능력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능력으로 늘어나는 타일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하여 지난해 공장에서는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3단계 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려놓았다.

결국 로력을 훨씬 줄이면서도 생산능력은 배로 장성시키게 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은 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유약을 비롯한 원자재들을 국내원료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타일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철저히 담보하게 되였다.



공장에서 생산한 타일제품들은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과 마감건재부문의 전람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공장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자체의 튼튼한 기술력량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는것이 이 공장종업원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공장에서는 쟁쟁한 실력가들로 무어진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에게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1건이상씩 맡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종업원전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결국 생산장성에 이바지되는 기술혁신안들이 수많이 나오게 되였으며 그것은 곧 제품질제고의 중요한 요소로, 단위발전을 추동한 요인으로 되였다. 그들이 생산한 타일제품들이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과 마감건재부문의 전람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지금 공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타일생산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강수정

광천닭공장

우리 나라 가금업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선 광천닭공장은 고기와 알생산의 집약화, 과학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공장이다.

황해북도 황주군의 광천지구가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리상과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상이 집약된 가금업의 본보기고장으로 전변되였다.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나라의 가금업발전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닭공장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대책도 취해주시였다.

하여 가금업발전의 새로운 기준점, 본보기로 되는 광천닭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지난 1월에 조업하였다.

모든 사육호동의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되여있고 통합생산체계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공장은 고기와 알생산의 집약화, 과학화를 완벽하게 담보하고 있다.

광천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세워져있으며 수의방역과 실험분석체계도 높은 수준에서 확립되여있는 공장은 갖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과일나무, 잔디 등으로 원림화되여 하나의 공원을 방불케 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알은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인민들에게 가닿고있다.

각지의 수많은 일군들과 전문가들이 현대화를 지향하는 모든 단위들의 목표를 명백히 제시한 광천닭공장의 발전수준을 체감하고 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김선경

전위거리의 야경

수도 평양에 특색있게 일떠선 전위거리의 야경은 유정한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naenara.com.kp www.minzu.rep.kp www.youth.rep.kp www.korean-books.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mfa.gov.kp www.kiyctc.com.kp www.friend.com.kp www.mirae.aca.kp www.korfilm.com.kp www.cooks.org.kp

www.korelcfund.org.kp www.tourismdprk.gov.kp www.ma.gov.kp www.sdprk.org.kp www.fia.law.kp www.manmulsang.com.kp www.koredufund.org.kp www.korstamp.com.kp www.mediaryu-gyong.com.kp www.gpsh.edu.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ryomyong.edu.kp www.knic.com.kp

ㄱ-24088019739

© 조선화보사 2024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